

# 韓國 建築歷史 연구의 批判과 方向摸索

— 實踐理論으로서의 建築歷史方法—

李熙奉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 I. 序論

전통 건축기행 모임에서 어느 건축역사가가 발표를 끝내자, 한 건축가가 무언가 설계에 도움이 되게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줄 수는 없는가 하고 물었다. 물론 역사가의 대답은 그렇게 손쉽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건축가가 알아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짙막한 사건으로부터 건축학, 건축역사학, 건축설계 실무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끌어내어 주제로 삼고자 한다. 건축학에서 건축역사학은 필요한 학문인가?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필요한 학문인가? 아니면 “필요”란 말을 해서 안되는 학문인가? 건축학 속에서 건축역사는 어떤 위치를 갖는가? 아니면 건축역사학이 건축학과 무관하게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근원적인 의문이 생기게 된다.

이는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하는 질문인바, 열심히 자기길을 가는 사람도 숲속에 깊이 들어갔을 때 높은곳에 올라 전반적인 방향을 조망해 보아, 만약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면 과감히 수정하여 제방향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한두사람이 무슨 길을 가진 개인의 문제에

불과하겠지만 여러 사람이 관련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사실 한국 건축학계처럼 학문존재 당위성과 연구방향에 대하여 점검해 보는데 인색한 학계도 드물 것이라 생각되며, 학자들의 모임 학회의 주요임무가 친목이나 사업보다 학문의 방향 점검이 아닐까 생각된다.

## II. 本論

### 1. 建築學界 部分文化 속에서 建築歷史學의 問題

인간집단이 일을 하면 당위성이 따른다. 하물며 학문집단에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건축역사를 쓰는가?”하는 간단하지만 절실한 질문으로 시작하려 한다.

그런데 학문의 출발점이 되는 “왜 연구했는가?”, 또는 “그래서 어쨌다는거냐?”는 질문을 건축역사 논문발표장에서 던졌을때 답은 얻기 힘들며 건축역사 연구집단으로부터 쓸데없이 시비를 거는 불한당 취급을 받기 십상이다. 그러나 지식으로서의 건축역사는 확고부동한 것이 아니

다.

인간의 모든 지식은 어느 시대나 일정 “집단”의 상황과 위치에 놓여 있는 입장을 나타낸다.<sup>1)</sup> 또 어떤 집단이 특별한 생각을 하고 관행을 갖는 것을 부분문화라 문화인류학에서 정의한다(이희봉 1988 : 9-10).<sup>2)</sup> 건축역사를 쓰는 역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생겨남에 따라 건축역사학의 공동체가 결성되고 자체의 부분문화가 알게 모르게 형성되었다—사고방식, 작업양태, 연구대상, 그 방법 모든 것이.

과연 이 시대의 건축역사학 지식이 제대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부분문화는 바람직하게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보자. 우선 건축역사학은 무엇하는 학문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답을 얻기가 쉽지 않다. 일례로 사회학은 무엇하는 학문인가?에 대해서 학자들간에도 의견이 분분하여, 대신 사회학자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 그 학문의 위치를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역사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차선의 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근래 여러 학문 분야에서 자체 점검을 10년 단위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건축역사학은 ‘지식학’상<sup>3)</sup> 현주소와 방향을 검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연구인력은 많아지고 연구업적, 즉 보고서나 논문의 생산활동은 활발하나 역사철학의 빈곤으로인하여 “누구를 위해, 왜, 무엇 때문에”라는 근본적 질문을 맞게 되었다.

이 문제를 둘로 나누어 본질적으로 건축학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건축역사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역사학 자체의 지식학적 검토를 통해 본 건축역사학의 문제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實踐學問으로 본 建築歷史學 批判

건축역사학은 건축학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 있음은 자명하다. 건축학이 없으면 그 세분야인 건축역사학의 존재 기반이 흔들림을 말한다. 혹자는 건축역사학이 역사학속의 한 분야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건축역사학자들이 건축학의 녹을 먹고 있음을 보면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지 기반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선 건축학이 어떠한 경로로 발달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현재 한국 건축학계는 같은 漢字문화권인 일본 건축학계의 관행과(물론 그들이 받아들인 서양 건축학을 포함하지만) 근래의 서양 건축학계의 관행이 뒤섞여 있다. 건축학의 細分野를 누가 어떻게 쪼갰으며, 어떻게 이름 부르며, 각 분야의 역할 분담이 무엇인지에 관해 우리가 주체적, 능동적으로 행하지 못하고 양 문화권의 관행을 받아들이기만 한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건축학의 발전을 위하여 분명히 물어볼 때다.

서양의 건축학은 엄격히 말하여 학문이 아니었다. 보통 서양 학문을 나타내는 어미가 ‘-logy’로 끝남에 대해 ‘architecture’는 그 어미를 갖고 있지 않다. 일본에서 명치유신 이후 ‘architecture’를 번역하면서 ‘建+築’이라는 조어를 만들었고, 그에다가 ‘學’자를 하나 덧붙여서 ‘建築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자어의 건축학에 해당

1) 인간의 지식이 절대적이 아니라 특정시대 특정지역에서의 사회적 산물임을 말하는 여러 학자들중 Karl Mannheim이 고전적이다. 그는 *Ideology and Utopia*에서 知識의 社會學을 주장했다. (New York : HBJ Books, 1936) pp. 264-311.

2) 部分文化란 민족, 계층, 지역, 직업, 연령, 성별등 어떤 것이나 따라 사고방식, 생활양식, 가치, 습관등이 분명히 다름을 보여주는 部分集合의 文化이다. 인류학자 Kroeber는 “專門家 部分文化”를 들어 “직업적인 기술과는 별도로 인식, 기준, 취미, 기호, 예절, 오락등이 다름을 보여주는 文化로 설명했다. (*Anthropology : Culture Patterns and Processes*(New York : HBJ, 1923/1963) p. 83). 쉬운 우리말로는 “慣行”이 ‘部分文化’와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들 建築家, 建築學者, 建築歷史家의 慣行이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3) 서양의 ‘Epistemology’를 일본인들이 ‘認識論’으로 번역하여 우리도 사용하고 있으나, 영어사전에서 그 뜻을 보면 ‘study of knowlege’로 간단히 나온다

(예 :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知覺-認識의 복잡한 철학이 연상되는 ‘인식론’이란 용어 대신 뜻이 분명한 ‘知識學’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하는 영어는 없는 셈이다.<sup>4)</sup> 서양의 건축학의 발달 경로를 보면 연구하는 순수학문으로서가 아니라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건축술로 볼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양에서는 학문으로서의 건축학의 기반이 지금도 아직 취약한데 반해 이미 르네상스 시대부터 전문직업인으로서 건축가들은 건물을 잘 짓기 위한 방법을 탐구하여 오고 있다. 요약하면, 건축학은 순수학문이 아니라 건축실무자(건축가 또는 시공기사)를 양성하는 실천학문이다.

천문학 같은 순수학문은 연구자가 그 결과를 어디에 사용할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학문이지만, 건축학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건축학의 모든 연구는 건축실천, 즉 ‘짓기’를 우선 목표로 하여 직접 간접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말한다. 건축학 속에 들어 있는 건축역사학이 현재의 건축실천과 무관하게 진행될 때 존재기반을 스스로 취약하게 만들며, 학교교육에서 건축역사 과목은 현재와 같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일반교양강좌 정도로 취급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

## 2) 現在—過去와의 관계로 본 純粹歷史學 批判

건축역사학이 방법론을 빌리고 있는(현재 많은 건축역사학 전공자들이 과연 역사방법론에 대한 탐구가 있는지 의심스럽지만) 역사학 자체에서도, “역사학은 과연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만약 역사학이 흔히 대중들이 생각하듯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역사가의 박식 과시와 그의 직업유지외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역사 ‘그 자체만을 위해’, ‘과거의 경험을 알고 이해하는’ 과거연구 역사가들의 역사주의는 결국 ‘역사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 밖에 남지 않았다(Barraclough 1983 : 29-30).

Carr의 대중 교양강좌에서도 분명히 밝히듯 현재의 역사가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취급하므로 역사란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왕복운동이다

(Carr 1961 : 35).

과거 역사가들이 ‘객관적 사실’이니 ‘엄밀한 과거의 복원’이니 하여 마치 역사를 자신으로 부터 별개의 독립된 개체로 보는 오류가 지적되고 있다. 결국 지식이란 ‘무엇을 위한 지식’일뿐이다. 역사가는 그 시대의 산물이며 역사가의 자의적인 판단아래 알게 모르게 현재와 관계있는 사실(직접 연관되든, 간접적으로 현재의 문제에 흥미를 갖게 되든)의 주제가 선택되게 되고 그에 따라 사료가 수집되고 분석된다. 객관적 사료라는 것도 역사가가 선택한 “현재와 관계있는 사실, 현재인이 흥미를 갖는 사실, 현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사실”이므로 역사는 순수한 과거가 아니고 현재적인 요소가 내재하고 있다(杜維運 1984 : 34).

역사상의 과거는 과거에 되어 온 것을 파악하여 앞으로 되어 갈 것에 대해 답을 주어야 한다. 이는 현재가 어떻게 과거에서 발전해 나왔는가를 이해하려 할 때 ‘경향’, ‘과정’—변동과 발전의 과정을 관찰하고 이 과정을 미래로 투사하여 추측하는 방편으로 사용할 때 유용한 것이다(Daniels 1989 : 14).

역사가는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끌려 나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마르크 블로흐의 말을 빌리면, ‘감긴 필름을 역방향에서부터 풀어 나가서’ 사멸된 것에 대한 연구와 살아 있는 것에 대한 연구를 결합하도록 요구한다(Bloch 1979 : 59-60). 그런 의미에서 크로체와 콜링우드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고 반복한다(杜維運 1984 : 35). 여기서 역사가들이 자주 비교 하는 골동품 감정가와 역사가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골동품 감정가는 철저히 과거 속에 묻혀 지내지만 역사는 현재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과거를 연구하게 된다.

한편, 역사학의 최종 목표는 사료를 통하여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지만 건축학의 목표는 설계를 잘하여 집을 잘 짓는 것이다. 건축 역사가가 방법을 빌려 오기위해 역사학으로 들어갔으나 역사학 공동체의 역사주의 관행에 머무를 수는 없다. 건축 역사학은 모학문인 건축학이 실천학문이란 그늘 아래 있고, 또 역사학 자체도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명제 때문에, 현재의 한국의 설계에 무언가를 말해 주어야 할 의무

4) 學問體系로서의 建築學을 위하여 “architecturalogy”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치 音樂學이 “musicalogy”로 새로이 등장하듯.

가 있다.

또한 나아가 역사학에서, 현재인으로서 과거를 해석하기만 하는 자세에서 실천을 위한 역사학이 제안되고 있다. 창문 뒤에 숨어 현장을 내다보는 역사가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를 설명하기도 한다. 이렇듯 역사에서 대대로 내려온 방법론과 교리를 신봉하는 직업적 교조주의가 범학문적 접근 방법에 의해 깨뜨려져 가고 있다(세노 1985 : 177).

산이 거기 있으므로 올라간다는 등산가 식의 순수학문의 접근방식은 역사학 자체에서도 비판 받고 있으며, 건축역사 또한 과거에 대한 호기심, 탐구, 서술, 그 자체로서 끝나서는 안 되며 현재의 설계에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역사로부터의 교훈'을 현재의 건축계는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보면 석, 박사 학위 논문 심사가 역사 방법, 역사 철학에 대한 검토 없이, 얼마나 많이 자료들을 수집했는가하는 비학문적 방법으로 진행되므로 양 많게 두껍게 한 것이 우수 논문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 2. 우리의 現 狀況과 韓國建築歷史學

반만년 역사 진행 과정상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한국의 건축 현장은 일찌기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를 맞기 시작했고, 특히 최근 20년 사이에는 건물유형, 물량, 규모, 재료, 기술면에서 그 이전과는 다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매우 빨라 우리 스스로의 축적된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하고 선진 외국의 경험을 도입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과거의 전통 경험과의 역사 단절이 생기게 되었다.

근본적으로 역사학이 다른 학문과 다른 특성은 변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는 점이다.<sup>5)</sup> "역사의 연구 영역에서 참으로 무엇이 변화되었으며, 특히 그러한 변화가 왜,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단 몇마디로 말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수

행하여야만 하는 임무인 것이다(Braudel 1990 : 25)." 역사학은 과거의 변화의 요인, 상황을 규명하여 현재 처한 반만년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방향을 이끌어 주는데에 그 요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건축의 현재상황은 역사학의 대상으로 더 이상 좋을수가 없다.

그러나 과연 한국 건축역사학에서 과거의 불교 건축, 유교건축, 목구조, 마을, 포작, 창문틀등을 전공하는 건축역사가들이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위 주거지, 고층 오피스, 학교, 백화점, 병원 등등의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구조 건설을 맞아 무엇을 주고 있는가? 최소한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에 과연 무슨 힌트라도 주고 있는가?

현재에(또는 가까운 미래에) 대해 한국 건축역사학이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역사학의 임무는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바우하우스에서 그로피우스가 건축역사학을 배제시킨 것이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sup>6)</sup> 만약 그렇다면 한국 건축사는 한국 건축계에서 제외시키고(건축학도의 교육과정에서도) 한국 건축역사 연구 길드만의 관심사로 머무르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에서 건축역사학의 현주소를 살펴보자. 그동안 해방 후 대학에서 서양건축사를 가르쳐 왔고 각 대학에 한국건축사가 등장한 것은 70년대에 불과하다.<sup>7)</sup> 그나마 서양건축사도 이집

- 6) 바우하우스 교육자들은 건축역사가 18세기말에 끝났다고 보았다. 역사현상은 '양식'의 문제라 간주하였고, 만약 근대건축을 역사의 연장선으로 보아 역사 과목을 포함시킨다면 잡다한 과거양식속에 새양식을 하나 더 추가함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Bruno Zevi, "History as a Method of Teaching Architecture", in Marcus Wiffen (ed), *The History, Theory and Criticism of Architecture* (MIT Press, 1970), p.13. 지금, 과거의 한국건축이 건축역사가에 의해 죽은 '樣式'으로 화해, 창작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만연하는 것이 바우하우스 시대와 '역사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7) 한국건축사의 태동에 공헌한 것은 김수근의 60년대부터의 「공간」지의 전통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윤장섭의 「한국건축사」, 정인국의 「한국건축 양식론」, 신영훈, 김동현의 「고건축 단장」 등이라고 할 수 있다.

5) 일반 역사학에서 通時的인 "變化"라는 단어가 빠진다면, 과거를 연구하는 것은 共時的인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의 영역으로 충분할 것이다.

트-그리스-로마-고딕-르네상스-바로크-근대로 이어지는 서양의 몇 건축역사가들이 오늘날 그들의 양식에서 거슬러 올라가 임의로 택한 사료에 의해<sup>8)</sup> 비역사적 방법으로 서술한 교과서에 따라, 우리 역사교육자들이 역사철학 없이 백과사전식, 나열식으로 가르침으로써, 우리는 왜 서양 건축사를 배워야 하는지에 의문이 생기며, 알게 모르게 백인 중심의 문화적 제국주의에 빠져 들게 되었다.

한국 건축사가 태동한 이래 특히 최근 10년간 활발한 유적답사, 발굴, 실측조사가 행해져서 일 본인들이 몇 안되는 한국 건축 사료를 수집하여 저들의 틀에 맞추어 해석한 식민사관을 벗어나며 우리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집된 건축 역사 사료를 어떻게 체계화하고 해석하여 현재의 “반만년 역사상 큰 변화에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자료를 수집, 나열만하고 해석은 유보하거나 양식으로 계통을 분류하는등 아직도 단편적 연구에 머무르고 있어(최근 들어 몇몇 새로운 해석의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러한 연구를 하는가?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어이없이 취약하다. 한국 건축사 역시 서양 건축사와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교양강좌에(흡사 주부 교양강좌 같은) 머무르고 있다.

그러면, 한국 건축역사학이 교양강좌에 머무르고 있는 병폐의 원인을 보자.

먼저 復原式 역사학의 압도를 들 수 있다. 삼공 시절 특히 맹목적 국수주의(쇼비니즘)에 힘입어 많은 유적들이 복원되었다. 정확한 복원을 위하여서는 과거의 완벽한 재생이 필요하다. 따라서 마치 골동품 감정가와 같은 자세로서 부재 세부를 정확히 묘사, 서술하는 것이 마치 역사학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 그들은 현재와 차단된 과거의 시간 캡슐 속에 들어가 작업하고 끝내 버리

게 된다. 물론 유적의 보존이란 필요하며, 인간 문화재로서 문화재 전문위원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극소수 보존해야 할 대상에만 복원식 역사학이 필요한 것이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심어 나가야 하는 현재의 건축학계에는 “창조식 역사학”이 요구된다.

다음, 그러다 보니 수많은 실측 답사 조사를 하여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나열하는 것을 역사학으로 오해하는 史料羅列式 역사학이 통용되고 있다.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건축현상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음을 자랑하게 되고, 그것이 직업 유지 수단이된다. 콜링우드의 말을 빌리면, 역사학은 과학과 마찬가지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답하려 하는 학문이다(Collingwood 1977 : 9). 역사학 서술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는가로부터 시작된다. 근래 두꺼운 박사학위 논문들에도 사료의 나열만 보이는 질문 자체가 결여되고 있어 “필연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 힘든 작업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다음으로 細分化의 병폐를 들 수 있다. 이는 다분히 일본학풍의 영향이라 짐작되는바, 연구분야를 잘게 쪼개서 시기별, 구조 장식별, 용도별 전공이 생긴다(심하면 기둥머리, 몸통, 창문전공도 생길 수 있다). 왜 그렇게 나누는가에 대한 자각 없이, 지도교수가 만들어 놓은 빈 칸을 때꾸는 직업쟁이가 되어버린다. 좁은 틈새를 연구하는 것은 특수한 것을 통하여 보다 큰 보편적인 얘기를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야 한다. 갈라서 자기 위치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sup>9)</sup>

8) 일예로 Pevsner의 *The Outline of European Architecture*에서 2500년의 유럽 건축역사 서술을 위해 1000여개의 건물이 사료로 선택되는데, 대부분이 성당건축으로 편중되어있다.

9) “일본 전통건축 연구 현황과 전통건축 기법”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건축사연구회 주최, 1991. 4. 20 문화재단 리국 강당) 中川武는 일본의 건축역사 연구가 현재에 갖고있는 문제점의 질문에 대해, “현재의 건축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방황하고 있으며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제안하지 못함”을 실토하며 “과거에 대해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역사를 다시 해석하는 문제가 대두된다”고 답하였다. 이를 해석하면, 일 본인들이 그동안 세부를 열심히 실측조사하여 자료화 하였으나 끝내고 보니 현재에서의 의미는 미궁에 빠지게 되어 그 힘든 작업을 왜 했는가?에 답을 줄수 없

역사학에서 우리의 한국 건축역사의 현재 상황과 유사한 병폐에 대한 비판을 보자.

캠브리지에서 Acton의 뒤를 이은 Bury에 의해, “인류 역사의 사실은, 가장 조그마한 것들까지도 완전하게 집결되는 경우 스스로 말할 것이다.”고 믿도록 조장된 그 다음 세대의 역사가들은 그들의 작업이 아무리 전문화되더라도 저절로 실제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리라고 확신하면서, 구성구석 아주 사소한 것까지 어렵게 들추어 내는 연구에 몰두하였다. 너무나 빈번히 연구 결과는 종합이 불가능한, 다루기 힘든 자료들의 양적인 축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이렇게 “무의미한 것을 현학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게 된 역사연구의 “무미건조한 전문화 지상주의”와 “통찰력 결여”에 대한 불만이 1930년대에 들어와 자라나게 되었다(Barraclough 1983 : 20).

거슬러 올라가보면 과거 모든 학문이 철학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세분되어 편의상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각 학문 공동체가 형성되고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특권을 누리는 세력이 형성되며, 더구나 그 학문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관행이 굳어지며, 그 학문의 틀이 마치 영원불변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점차 현대학문의 경향은 분야세분의 폐단을 알고 점차 통합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범학문간(Interdisciplinary : [일]學際間) 통합작업이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는 때에 건축학, 또는 건축역사학만이 튼튼한 울타리 속에서 장수할 수는 없다. 한국 건축역사학이 기존 관행의 틀을 깨고 다시 태어날 때 참다운 발전이 있을 것이다.<sup>10)</sup> 현재의 큰 변화에 면하여 무언가 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 부석사 무량수전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라고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봉정사 극락전으로 바뀌었다. 부재의 형태와 구성방법과 공포의 형식등으로 고중에 의하여 연대의 선후를 철저히 규명하였으리라 짐작하지만 어느 것이 앞섰건 뒤섰건 현재에 거거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또 전통 목조 건축이 이미 죽어버린(명맥은 유지하겠지만) 지금 콘크리트나 철골로 지으려고 할 때 봉정사-부석사 선후 관계가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역사의 문제는 박물관이나 무슨 기념관 설계 같은 곳에서만 흥미거리가 될 것이 아니라, 오피스, 학교, 병원, 아파트 단지, 길의 설계에서도 설계의 방향을 제시해 줄 때, 건축역사가가 연구하는 과거와 살고있는 현재와 대화할 수 있을 것이며, 건축역사학이 목표의식 없이 과거에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면제될 수 있을 것이다.

### 3. 實踐을 위한 建築歷史學 理論

1. 절에서 본 바와 같이 순수역사학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왜?’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하여 실천을 향한 역사학으로 방향수정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과거 그 자체만을 위한 과거 연구’라는 역사주의의 폐해에서 탈출이 요망되며, 그러자면 과거의 특수성(건축학에서는 개개 건물이나 건축 행위)으로부터 현재의 보편적 해석의 광장으로 나올 때에 비로소 현실에 대해 실질적인 기여를 할 가능성이 생긴다.

나아가, 역사가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평에서 떠나, 대상을 객체화하는 제념의 역사로부터 전환이 요망된다. — “창문을 뒤에 숨어서 소심하게 과거를 바라보는 그리고 노신이 표현한 대로

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일본인의 현학적이고 미련한 방법—모든 것을 실측조사하는 방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역사철학의 바탕위에서 역사방법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절실하다.

10) David Watkin은 *The Rise of Architectural History*에서

(U. of Chicago Press, 1980, p.183) 건축역사학의 최근 경향에 대해 (일종의 기존 역사학에 대한 반성으로), 건물을 독립시켜 연구하는 대신 “그것을 낳은 사회와 당시 생활양식과 연관시키는 것을 어렵지만 도전해야할 분야”로 언급한다.

단순한 소일거리로 멍하게 아침에 내린 서리 위의 파리 발자국을 쫓는 대신, 특권을 부여받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한정된 지식인의 역할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세노의 지적처럼(세노 1985: 183). 배러클로우, 역사학자가 냉정하게 분쟁을 초월한 곳에서 있어야만 하며 장의로부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부한다(Barraclough 1983: 9). 이는 인문사회과학에서 ‘객관성, 가치중립성’이 이미 알게 모르게 지배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편향된 허구임이 근래의 과학철학, 지식학 상에서 논의된 지 오래인 것과 상통한다. 또한 역사가가 그토록 애쓰는 ‘엄밀한 과거의 복원’을 위해 ‘사실로 된 사료’를 수집하기를 주장하나, 이미 사실의 문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지 결코 미덕이 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갖고 있는 의미(significance)의 해석에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Canter 1967: 259. Daniels 1989: 58).

지금 시대에 도대체 과거연구가 왜 필요한가 하는 역사의 효용성 문제는 역사연구의 출발점에서부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물음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행동하려는 사람은 과거의 경험에서부터 배워야 할 것이며 그 답은 역사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Daniels 1989: 13). 순수 역사연구도 언젠가 누구에게나 필요할 것이라는 막연하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할 때, 역사는 죽은 역사가 아닌 산 역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연구의 주제선택, 사료수집과 그 해석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무엇보다 건축학쪽에서는 현재 여기의 상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건축학은 응용학문이며 현재의 설계와 시공이라는 실천에 봉사해야 하므로, 건축역사연구는 과거연구에서 탈피하여 실천연구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실천의 뿌리는 동양에서 거슬러 올라가 공자의 知行合一사상에서 나온다. 行을 전제하지 않은 知는 죽은 지식이며 학문의 사치일 뿐이다. 모택동은 더 나아가 “지식을 얻고자 하면 변화하는 현실 속의 실천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산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Mao 1965). 이는 서양의 교육철학자 듀이의 Pragmatism과도

상통된다. “지식은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한 판단, 즉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실천 판단’을 요구한다”(김태길 1979: 72)

‘실천을 위한 역사’란 다름 아니라 최소한 현재에 교훈을 주고 미래에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가 현재가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면 개선시키고 변혁시키는 역사를 말한다.

한편 역사학 자체에서의 실천역사의 분출과 비교하여 더더욱 실천학문인 건축학 분야를 살펴보자. 현재 한국 건축역사학계에서 실천을 위해 얼마나 나아가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 연구의 종류를 단순화 시켜 본다면 다음과 같다. — ① 유구를 정확히 실측조사했더니 이렇다. ②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가를 해석해 보니 이렇다. ③ 오늘의 건축 실천에 시사하는 바, 주는 교훈을 무엇이다. ④ 그리고 더 나아가한다면 앞으로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건축학계에서는 ①을 지나 ②를 향해 나가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③에 대한 뚜렷한 자기 인식이 없다면 왜 그 많은 시간, 인력, 자금을 낭비하면서 그 주제를 택해 연구했는가 하는 질문에 당연히 봉착하게 된다. 그런데 실천 응용학문인 건축학에 궁극적인 ④의 답, 그래서 어떻게 설계하라는 말이나?에 답을 주려면 역사학 자체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순수 역사학의 최종 해석의 서술적 문체는 그림으로 그려내야 하는 건축가에게 막연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역사 서술방법은 최소한 그림의 전 단계로서 설계지침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말로 한다면 설계이론화, 그중 실천이론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쯤에서 건축분야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理論’이란 말과 본 글에서 중요 개념으로 등장하고 ‘實踐’이란 말을 검토해 보자.

철학사전에서 보면, “이론은 언제나 실천을 염두에 둔 對가되는 개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에 반대되는 순수지식, 실천으로부터의 추상, 실천과정상으로부터의 원리로 이론을 설명하고, 실천이란 이론의 신중한 적용”이라 보고 있다(Runes 1980).

건축이론 원조인 비트루비우스도 건축에서의

모든 지식을 실천과 이론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설계에 따라 짓는 실행작업을 실천이라 보고, 반면에 이론은 비례원리에 따라 실행을 설명하고 예시하는 것으로 보았다(Vitruvius 1960 : 5).

우리는 흔히 “이론상은 그럴듯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나쁜 이론이 범람하기 때문이다. “이론은 실천에 관한 것이다. 만약 맥락과 형식만 적절히 조건지어 준다면 실제와 맞아 떨어지야만 한다(Kaplan 1963 : 296).” 요약하면 이론이란 실천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건축계내에서 몇 갈래로 혼용되고 있는 ‘이론’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서양 문화권에서 History and Theory라고 하는 건축역사 및 이론할 때의 ‘이론’과 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일반 학문에서의 ‘이론’은 단어를 같으나 지칭하는 바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비트루비우스류의 이론은 ‘설계원리’라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 어느 특정시대의 설계원리(예 : 르네상스시대의 비례원리), 어느 건축가의 설계원리(예 : 쾰르부지에의) 등등은 과학적으로 타당하나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 시대에 통용되던 생각, 미신, 설계자의 신념들이 ‘역사 및 이론’할 때의 이론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근래 건축계에서 특히 행태주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등장한 분야에서의 이론은 과학에서의 이론을 말한다. 랭은 전자를 규범이론(Normative Theory), 후자를 실증이론(Positive Theory)이라 부른다(Lang 1987 : 15).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계열의 아주 다른 개념이 건축계에서 같은 용어로 혼용되는 결과 상당한 혼란이 따른다.

이에 더하여 일본에서는 Architectural Theory에 해당하는 것을 建築論이라 부르는데, 혼동이 가중된다. 언어관습상 무엇이든 대하여서건 아무렇게나 논하면 ‘論’이 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며, 형이상학적, 골치 아픈 얘기를 건축론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론’이라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누구의 이론을 지칭할 수 있으나 ‘건축론’, ‘의장론’, ‘공간론’이라 했을 때, 설계이론(Principle)인지, 학문용어의 이론(Theory)인지 알 수가 없다.<sup>11)</sup>

건축가들은 학자들과는 달리(건축학자 역시 실무에서 출발함으로써 학문적 전통이 취약하지만) 개념정의 습관이 없으므로 건축이론이란 말은 쓰지만, 정말로 무엇이 건축이론인가에 대하여는 별 관심이 없다. 그중 드물게 아토는 “건축의 이론과 비평의 역사”라는 글에서 “이론이란, ‘건축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이룩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설계를 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는 일반적인 성명서”로 보고 “건축의 이론은 과학의 이론처럼 그렇게 엄격하거나 정확하지는 않다.”고 실토한다(Attoe 1984 : 37-38).

설계원리로서의 이론과 학문용어로서의 이론은 실천이론화 함으로써 통합될 수 있다. 건축역사의 서술방법이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설계원리를 밝혀 낸다면” 실천을 위한 건축역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Fletcher류의 서양건축사를 본따 만들어진 우리나라 서양건축사 책을 보면 ‘형태’조사만 하고 있지 건물이 빠져 나오게 된 원인에 대한 설명이 극히 소홀하다. 그러나 서양 건축 역사 자체에서도 그리스-로마식의 나열식이 아닌 무슨 ‘힘’이 형태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좀더 객관적인 과학에 가까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몇몇 반항적 역사가들은 서양의 현학적 주류 건축역사학에서 탈피하여, 그 시대 그 지역 문화와 자연 환경 조건 속에서 그 건물을 탄생시킨 원리를 밝혀내려고 한다. 건축역사가 Fitch는 주류 건축역사가 보편적인 세계의 건축에는(주류 건축 용어로 ‘토속건축’)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통감하고 “오늘날 형태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

11) 특히 일본인들은 建築論과 建築計劃이라는 영어권에서는 분리되지 않는 과목을 나누는데 영역이 어떻게 다르며 왜 달라야하는가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보지 못했다. ‘기능’이 들어가면 ‘計劃’이고 ‘미’가 들어가면 ‘論’으로 짐작되나 근래 구미의 학문에서 설계방법론, 행태적 접근등에서의 엄격한 理論과 일본 원산지의 論이 충돌을 일으킨다. 다른나라의 학문 관행이 무엇이든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건축학에서는 독자의 분명한 분류와 개념정립작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학문 식민지가 되어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를 이해하여 수천년 동안 우리와 마찬가지로 머리 좋은 인간의 경험에 의해 증류된 원리들은 밝혀내고 오늘날 건축가가 이 원리들을 습득할 때 건축설계의 진보가 이루어질 것이다. 건축역사가가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할 것인가? (Fitch 1961 : 243-44)” 라고 말한다.

건축가들도 겸허하게 과거 건축의 설계원리로서 ‘힘’을 찾아나간다. “건물형태 형성에는 몇 천개의 힘이 작용할텐데 건축가는 이런 힘에 감응하기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Caudill 1981 : 158).”

만약 역사가 설계에 도움을 주려는 생각이 있다면 건물 스타일 해설이 아니라 형태 형성에 작용한 힘들을 찾아나가야 하며, 이는 실증적 원리이므로 과거의 것이라고 해서 오늘날에도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 역사학계 부분문화 속에서 편향된 방향으로 진행해 간 건축역사는 그러한 보편적 원리를 찾도록 방향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건축역사는 현재의 건축실천에 목표를 두고 원리로서의 이론과 통합되어야 한다. 이 때의 이론이란 규범적 이론이 아니라 실증적 이론으로, 나아가 응용학문인 건축학에서는 실천이론화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건축역사도 형태묘사나 변화해설이 아닌 설계원리를 찾아내려는 “이론화” 되어야 한다. 따라서 순수 역사학 서술방법이 아닌 건축역사와 건축설계이론이 합쳐진 역사를 써야 할 것이다. 만약 정말로 건축 실천에 도움이 되는 역사를 한다면 제비의 주장처럼 건축역사는 설계이론화하여 현재의 제도관 속으로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이다(Zevi 1970 : 19).

### Ⅲ. 結論 및 提案

#### 1. 脫 復寫 우리화 段階에서의 建築歷史學

타의에 의해 시작된 서양건축의 도입이 1세기가 되어가는 지금, 한국 건축역사는 현상황에 개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복사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독자의 형태를 개발해야 할 때다. 마치 일본인들이 트란지스터 라디오를

복사하는것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전 세계의 전자왕국이 된 것처럼—그들은 최신 외제를 사다가 무조건 분해하고 녹여보고 완전 해체하여 본 후 자기네 아이디어를 하나 추가하여 세계제일을 만들었다. 외국의 건축형태를 완전 분해하여 손바닥 안에 두고 눈감고도 환히 알아야 제 2의 창작이 된다. 이는 진보된 기술을 부정하고 원시상태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도입하는 건축기술은 첨단인 정도보다는 그 지역 주민에, 풍토에 얼마나 적합한가로 우열이 판가름되어야 할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복사단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외국의 잡지, 서적을 통하여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형태를 영문도 모르고 받아들인다. 실제 외국에 가서 최신유형을 받아 돌아와서 한번 마음껏 휘둘러보고자 한다. 학위 논문으로 포스트모더니즘, 팝아키텍처, 해체주의를 택하기도 한다. 더구나 건축대전 심사에 뽑히려면 무언가 비비 파서 설계해야 한다고 학생들은 믿고 있다. 심지어 외국 설계 조직이 설계하고 한국의 우수 설계사무소가 허가 대행업소로 전락한다. 우루과이라운드 문제가 심각하지만 건축계에서 설계, 시공을 완전 개방한다면 얼마나 많은 업체가 살아 남을 것인가?

인류 문명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새문명이 유입되고 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더 발달한다고 한다.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이란 생물학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마가레트 미드는 ‘역수직 문화’(Prefigurative Culture)로 문화 도입을 설명한다(Mead 1978 : 65-91).

앞의 개념은 외부조건이 지나치게 가혹하면 절멸되지만, 적당한 강도의 충격이 도전으로 주어지면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발전된다는 것이고, 뒤의 개념은 발전된 외부 문화가 들어오면 전통 세대의 경험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지만, 그 단계가 지나면 차차 새세대는 신 문화에 전통문화의 장점을 실어서 독자의 창조적인 제3의 문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밀려오는 외부 흐름에 내맡기고만 있다. 지금까지도 유행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보자. 몇개의

경향 중 쟁크스가 '역사주의'로 명명한 것은 그저 이것 저것 역사에서의 아무 형태 디테일을 가져다가 모자이크하지는 것으로 '역사'라는 말을 오용하고 있다.<sup>12)</sup> 특히 그들의 역사 모티브로서 삼각형 페티먼트와 그리스 기둥들 또는 돛모를 아취들이 복사되어 한국의 도시에까지 판을 친다. 자본주의 상업성과 결부한 반짝거리는 산뜻한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역사의 깊숙한 곳에서 우리나라 본질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니겐 설계조직, 백텔 설계조직이 고추장 김치 먹는 한국인에 맞는 아파트 형태를 제시해 주기를 기대할 수 없다.<sup>13)</sup> 도대체 화장실의 위생도기—변기, 세면기, 욕조가 우리에게 맞는지, 발은 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는데에,<sup>14)</sup> 또 6인 병실에서 보호자가 맨바닥에, 합이 12명이 자는, 가족행사로서의 병을 치르는 그들과는 다른 문화속에서 병원 현실개선에 그들 조직이 과연 기여를 할 수 있을까가 의문이다.<sup>15)</sup> 그들의 문화에서 진화해온 형태를 수출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수입하는 쪽의 문제다. 뭔가 제대로 알고 수입하고, 또 수입한 다음 완전 분해하여 영문을 알고 우리식으로 재빨리 고쳐 나간다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 '문화적 식민지'로 이미 진입해 있다.

식민지로 떨어진 급박한 상황속에서 한국 건축사는 그야 말로 케케묵은 잠꼬대를 하고 있다. 도대체 역사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가가 궁금하다. 상황인식 후에야 역사 연구 주제가 선택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세분된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래야 역으로 각자 하고 있는 세분화된 디테일에

질문했을 때 저절로 상황인식이 나오고 "왜 그런 것을 하고 있는가?"에 분명한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상황과 관련하여 현재의 역사 방법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 보자. 형태는 그 당시 상황의 산물이다. 時空이 다른 곳의 형태를 그대로 복사해서는 지금 여기에 성립할 수가 없다.<sup>16)</sup> 따라서 역사학은 현재와 과거의 양 상황 속에서 비교 문화학(Cross-Cultural Study)의 방법을 뿔 수 밖에 없다.

인류학적 비교 문화학은 주로 장소적 상황이 다른 곳을 연구하지만 역사학은 시간적 상황이 다른 곳을 연구하게 된다.

과거의 건축형태가 탄생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활양식, 생산기술, 기호풍토, 재료, 정치경제 체제 속에서 그 형태가 나오게 한 '힘'들을 찾아내야 한다.<sup>17)</sup> 그리하여 현재에도 어떤점은 그대로 이식될 수 있고 어떤 것은 성립하지 않고 어떤것은 변형시켜야 될런지를 정해야 한다. 그러자면 과거상황과 현재상황의 비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sup>18)</sup>

12) Charles Jencks, "Post-Modern History", *Architectural Design*, 7801, p.16에 보면 주로 "전통요소의 장식적 사용"을 '역사주의'로 본다.

13) 이희봉, 이규성, 우동주, "한국인의 생활양식에 맞는 주거형태 설계를 위한 현장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1. 4. 참조.

14) 이희봉, "우리네 생활양식과 저네의 주거형태", 「주택」, 대한주택공사, 1986. 참조

15) 이희봉, 김윤식, "한국인에 맞는 병실계획을 위한 현장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1. 6. 참조

16) 철학자 김용옥은 죽은 과거를 현재로 끌어올 때 오늘의 상황 속에서 다시 살리는 "완전번역"을 할것을 주장한다.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민음사, 1985), pp.104-18

17) 서양의 主流(Main Stream) 建築史家들은 이 힘을 찾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않고 오히려 토착건축 연구자들이 편견없이 접근한 방법이 유용하다. —Bernard Roudofsky, James Fitch, Henry Glassie 등. Fitch는 *American Building: The Environmental Forces That Shape It* and *The Historical Forces That Shape It*에서 '힘'이란 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다.

18) 김용옥은 딜타이의 「역사이성비판」의 설명중에 역사가 자신의 시대의 지평과 과거의 지평간의 매개자로서 역사가를 제시하고 역사적 맥락의 상황관이 다름을 보여주며, 역사가의 생각이 다른 판(과거판)으로 이입될 때 과거의 의미가 함범화 된다고 본다. 「절차탁마대기만성」(통나무, 1987), pp.18-19. ('판'은 본 필자가 해석하여 만든 용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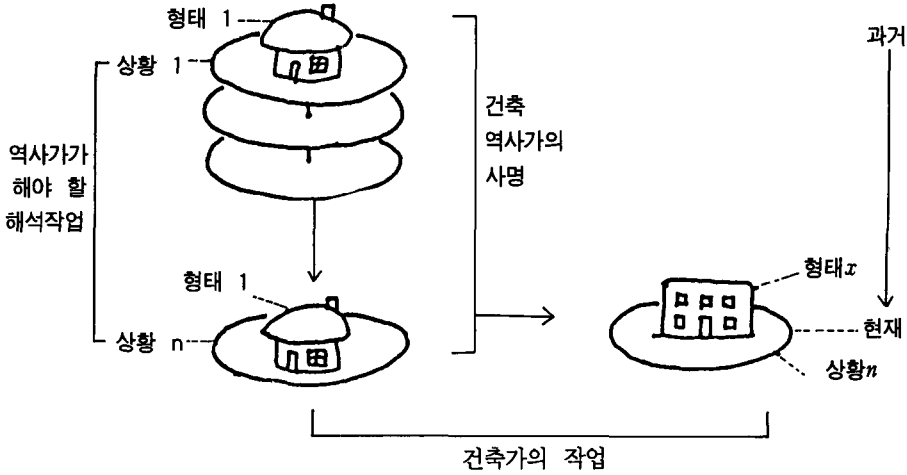


그림 상황판 이동구조로 본 건축역사

한개의 상황판에 대응하는 한개의 형태가 있으므로 형태와 상황판과의 관계를 밝히지 않고 모방해서는 안된다. 한국건축 역사상 크게보아 다음과 같은 세개의 다른 상황판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제1판: 원시판 제2판: 전통판 제3판: 현대판  
구조로 본 동굴, 움집 — 목조기둥구조 — 철근철골  
(주심포, 다포 형식 포함) 대형복합

사회로 본 원시부족사회 — 봉건왕조국가 — 자본주의  
현대사회

여기서 말하는 '상황'과 혼동이 생길 수 있는 것은 건축저널리즘의 '맥락주의'(Contextualism)에서의 '맥락'이다. 그 '맥락'이란 기껏해야 근대 건축의 대규모 단지를 탈피하여 과거 도시의 형태 패턴을 도형-배경으로 보아 오늘날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결국 맥락은 형태의 맥락에 불과하여 앞서 사용한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말이다.<sup>19)</sup>

19) Tom Schumacher, "Contextualism: Urban Ideals+Deformation", Casabella, no 359-360,

역사는 과거의 무덤이 아니라 확대재생산 하기 위한 寶庫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역사가의 방향전환이 요구된다—넓은 학문에서부터 첨단, 창조적 학문으로.

첨단 방향의 일례로 6, 70년대의 삼공시절에는 가난의 상징이고, 부수어야 할 대상물이었던 초가집의 현대화를 들 수 있다. 박대통령식 스테이트 지붕, 시멘트 블럭벽으로, 한여름에 직사광선의 열이, 한겨울에는 한기가 그대로 전달되는 열악한 환경으로 백성들을 몰아 넣었던 실패의 교훈으로 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과거의 장점은 이어받고 단점을 고쳐 개선시켜 주는 것이 역사 발전일 것이다. 역사는 수천년 우리의 기후풍토에 맞게 살아남은 우리형태를 오늘날의 첨단기술로 해결해주는 획기적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썩지않고 타지않는 개량 초가, 습기에 견디

1971; Grame Shane, "Contextualism", *Architectual Design*, 7611; Charles Jencks, op. cit. 중 'Adhocism + Urbanism = Contextualism.' 이들은 문화적 맥락, 사회적 맥락이란 말을 쓰기도 하나 근본적으로 Camilo sitte나 Nolli의 도형-배경의 흑백 도시 지도 패턴을 현대 도시에 도입하자는 형태의 맥락이다.

는 흙벽, 옛 창호지 방식으로 온도 차단은 하되 공기는 통하게 숨쉬는 생물 첨단유리의 개발 등.

역사의 상황인식이란 현재 설계과정상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것도 없다. 대지를 답사하고 건축주 요구사항을 들은 다음 생활, 기능을 분석하여 형태를 만든다. 과거의 설계과정을 오늘날의 과정과 비교하는 것이 비교 문화학의 출발이 된다. 물론 주의를 요하는 것은 기호로서의 언어와 그 지칭하는 바의 고급 양문화의 차이이다. '건축', '조경'이란 단어가 과거에 있었는가? 없었다면 그에 해당하는 대상을 어떻게 분류했었는가를 비교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건축역사학은 건축학이라는 실천학문에 속해 있다는 이유와 역사학 자체에서 순수 과거가 아닌 현재와 연관된 과거 연구라는 지식학적 이유로 인하여 현재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 외래 문명의 유입으로 식민지화되는 절박한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과거로부터 내려온 경험을 첨단 기술로 확대재생산하여 살려 오늘날의 우리에게 적합한 건축물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진정한 역사발전을 이루도록, 한국건축역사연구의 대상과 방법과 철학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 2. 가능한 歷史研究의 提案

끝으로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여 창조적 한국 역사를 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① 순수역사가 아닌 이론의 역사로, 실천이론의 역사로 서술하여 설계방향 또는 지침을 제시한다.

② 서구의 주류 건축사 방법이나, 일본인들이 물려준 형태 묘사 서술이 아닌 토착건축 연구방법인, 형태를 만든 '힘'을 실증적으로 찾아나간다.

③ 사실의 나열, 복원이 아닌 사료를 해석하여 의미를 찾아나간다. 단, 과거의 상황 속에서의 의미와 오늘날에서의 의미를 분리한다.

④ 나아가 현재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슷한 현상— 건물용도상, 구조방식상, 종교이념상, 계층특성상—과 비교한다. 예를 들면 서원

건축을 연구한다면 현재의 캠퍼스 플래닝, 교실 설계에 지침을 제시해야 하고, 불사건축을 연구한다면 현대 종교건축에, 또는 현대건축 전반에 대해 무엇을 주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⑤ 역사상 작은 변화—이를테면 포작 형태의 변화—보다는 큰 변화순으로 연구대상을 택하여, 오늘날의 큰 변화에 방향을 제시한다.

⑥ 현재에 영향을 많이 주는 과거, 즉 가까운 과거부터 역방향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교육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건축사 교재의 절반이 1945년부터 현재까지 첫장으로 구성되고 그다음 1/4이 1900~1945년까지의 역사이고, 지금 통용되는 소위 '한국건축사' 즉 단군 이래 19세기 말까지의 역사는 그 나머지 1/4 마지막 장에 쓰여지는 것이다.

⑦ 각연구자의 연구대상의 선택은 급변하는 현재의 건축행위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여야 할 것이다.

⑧ 역사를 고립된 형태로 보지 말고 문명의 움직임으로 보아 오늘날의 움직임에 제안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인도의 불교 문명의 물적 형태가 중국, 한국을 거치면서 어떻게 토착화 또는 적합화해 나갔는가를 통하여, 오늘날 서구문명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받아들일지가 설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⑨ 특수사실의 보편적 해석이 필요하다. 특수한시대, 특수한 부분연구는 어떤 행태로든 보편화, 일반화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것이다.

⑩ 한국건축사의 주 메뉴인 주심포, 다포 형식 연구는 선후 연대 파악보다도 구조와 장식이라는 측면에서 "장식화된 구조"(Ornamented Structure)와 "구조화된 장식"(Structured Ornament)의 측면에서 고딕건축—바로크 건축과도 비교되고 오늘날의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에서의 구조와 장식 문제에 정식적, 물적 배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⑪ 여러 연구자가 다양하게 건축역사의 시대 구분을 하는데, 시대구분의 목적은 과거를 잘 이해함에 두기보다는 현재의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즉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시기 속에 속하는가 아니면 변혁을 해야 하는 시기인가의 행동 판

단 지침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IV. 후기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건축역사'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롭게 태어날 때, 이 글의 시작에서 언급한 역사가와 건축가간의 책임전

가는 사라지고, 역사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건축인들에게 발언권이 생기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앞으로 한국건축사를 연구하려는 분들이 연구 대상과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방법을 찾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뜻에서 쓴 것이다.

#### 참고문헌

1. 金容沃 「절차탁마대기만성」, 통나무, 1987
2. 金容沃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민음사, 1985
3. 金泰吉 「존 듀이의 사회철학」, 태양문화, 1979
4. 李熙奉 “인간회복의 도시설계를 위한 부분문화 이론과 방법”, 「국토계획」,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논문집, 1988. 3.
5. 李熙奉 “우리네 생활양식과 저네의 주거형태”, 「주택」, 대한주택공사, 1986
6. 李熙奉, 李奎成, 禹銅宙. “한국인의 생활양식에 맞는 주거형태설계를 위한 현장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1. 4.
7. 李熙奉, 金潤植. 한국인에 맞는 병실계획을 위한 현장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1. 6.
8. 車河淳 편. 「사관의 현대적 조명」, 청람, 1978
9. 杜維運. 「역사학 연구 방법론」 권중달 역, 일조각, 1984
10. 齊藤孝. 「역사와 역사학」 최민 역, 형성사, 1983
11. 林健太郎. 「역사학 입문」 우윤, 황인권 역, 청아, 1983
12. 세노, 장. 「실천을 위한 역사학」 주진오 역, 화다, 1985
13. Attoe, Wayne. “건축의 이론과 비평의 역사” J. Schneider & A. Catanese (ed) 「건축학 개론」, 기문당, 1984
14. Barraclough, Geoffrey. 「현대역사학의 추세와 방법론」 이연규 역, 풀빛, 1983
15. Barraclough, 장 세노 「실천을 위한 역사학」 영어판 서문, 화다, 1985
16. Bloch, Mark. 「역사를 위한 변명 : 역사가의 사명」 정남기 역, 한길사, 1979/1941
17. Braudel, Fernan. 「역사학 논고」 이정옥 역, 민음사, 1990
18. Canter, N. & Schnider, R. *How to Study History*. AHM Pub, 1967
19. Carr, Edward H. *What is History?* New York : Vintage, 1961
20. Caudill, William (et al). *Architecture and You : How to Experience and Enjoy Buildings*. New York : Watson-Guptill, 1981
21. Collingwood, R.G. *The Idea of History*. New York : Oxford Univ. Press, 1977
22. Daniels, Robert. 「어떻게 그리고 왜 역사를 연구해야 하나?」 김쾌상 역, 1989
23. Fitch, James M. *Architecture and Esthetics of Plenty*. Columbia Univ. Press, 1961

24. \_\_\_\_\_. *American Building: The Environmental Forces That Shape It*. N.Y : Schocken Books. 1975.
25. \_\_\_\_\_. *American Building: The Historical Forces That Shape It*. N.Y : Schocken Books. 1973.
26. Jencks, Charles. "Post-Modern History", *Architectural Design*. Jan. 1978.
27. Kaplan, Abraham. *The Conduct of Inquiry*. 1963.
28. Mannheim, Karl. *Ideology and Utopia*. New York : Harvest/HBJ, 1936.
29. Mao, Tse-Tung. "On Practice" *Four Essays on Philosophy of Mao Tse-Tung*. Foreign Language Press, Peking. 1968.
30. Mead, Magaret. *Culture and Commitment*. Garden City, N.Y. : Ancher Press, 1978.
31. Popper, Karl. *The Poverty of Historicism*. New York : Harper & Row, 1961.
32. Rose, Arnold. *Theory and Method in the Social Science*. Univ. of Minnesota Press, 1954.
33. Runes, Dagobert (ed.). *Dictionary of Philosophy*. Totowa, N.J. : Littlefield & Adams, 1980
34. Schumacher, Tom. "Contextualism : Urban Ideals+Deformation", *Casabella*. no. 359-360, 1971
35. Shane, Grahame. "Contextualism," *Architectural Design*. Nov. 1976.
36. Vitruvius. *The Tenbooks on Architecture*. N.Y. : Dover, 1960
37. Watkin, David. *The Rise of Architectural History*. Univ. of Chicago Press, 1980.
38. Zevi. Bruno. "History as a Method of Teaching Architecture" in Whiffen, Marcus. (ed) *The History, Theory and Criticism of Architecture*. MIT Press, 1970

# The Critique and Search for a Way of Historical Study of Korean Architecture

— Method as a Theory of Practice —

Lee, Hee Bong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new direction to the historical research society of Korean architecture by epistemological discussion.

Korean architectural history at present, without question of history for what, for whom, and how, is regarded as "history for the past" only "to describe past" or "to collect correct data"

However, history is beyond that; history ought to suggest a direction of present and near future. Moreover, architecture is not pure but applied knowledge, that is, focused to "how to build". Therefore, past historical knowledge by research should influence to present design. In order to do that, history of mere data collection should change direction to the history of meaning by interpretation, and then, of finding design principle. The principle used in architectural community becomes theory in scientific research community, and finally is unified to "theory of practice".

Creative history should be substituted for retrospective history reusing historical reservoir, at the specific situation of Korea; tradition has been discontinued drastically and Western method imported to the point of being culturally-colonized.

Some expmples of altanative history are suggested at the end of this paper as conclusion.